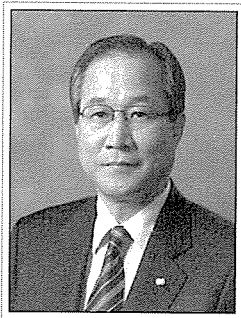


##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단결과 협력 모색

한준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66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원자력계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원자력 산업의 부흥은 물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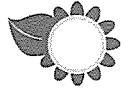
준 경하는 원자력계 가족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망의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원자력  
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  
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자력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원자력계의 숙원 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가 확보된 것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울진 원전 6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  
시함에 따라 총 20기, 시설 용량 1,772만  
kW의 원전 운영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  
었으며,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  
기의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착공으로 안  
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국제 유가 상승



으로 인한 외화 절감과 온실 가스 감축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자력은 우리가 봉착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자원 빈국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고 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원자력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도 동시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원자력 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발전소 운전 현황 및 원자력 시설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신규 원전 건설이나 원자력 시설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가족 여러분!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 난관은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자력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일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단체나 국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원자력계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원자력 산업의 부흥은 물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원자력계가 더욱 크게 발전하고 원자력 가족 여러분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